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지영
전화 032-860-4340

보도자료
2024. 6. 3.(월)

미국 發 필로폰·케타민·LSD 등 마약류 5종 대량 밀수 차단 - 시가 합계 8억원 상당, 약 7만명 투약분 마약류 압수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(부장검사 박성민)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공조 수사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필로폰, 케타민, 엑스터시, LSD, 대마오일 등 5종의 마약류를 여행용 캐리어와 백팩에 은닉한 채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밀수사범 1명을 검거하여 2024. 5. 30.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밀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,035.32g, 케타민 1,079.46g, 엑스터시 1,000정, LSD 800장, 대마오일 1,124.84g으로, 약 7만명 동시 투약분이고, 소매가 합계 약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양으로, 국내 반입 즉시 마약류 전량 압수하여 국내 유통·유통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.
- 이번 사안은 마약밀수조직이 직접 밀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,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을 제시하고 밀수책(속칭 '지게꾼')을 고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한 것으로, 최근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밀수책을 고용하고, 마약류를 밀수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 중점청으로서 「인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」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,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.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: A(남, 49세)
 - '24. 5. 13.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,035.32g, 케타민 1,079.46g, 엑스터시 1,000정, LSD 400장, 대마오일 1,124.84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소지한 채 같은 달 15. 16:03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[특가법위반(향정), 마약류관리법위반(대마)]

2

수사경과

- '24. 5. 15. 17:00 인천공항본부세관, A의 여행용 캐리어 내 마약류 적발
- '24. 5. 15. 17:48 인천지검, A 긴급체포, 필로폰 등 마약류 및 현금(422달러) 압수

※ A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5. 10.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, 현지 발송책이 호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닉해 둔 현금 500달러(체류비 명목), 주차장 구석에 놓아둔 여행용 캐리어를 수거한 후 그 안에 은닉되어 있던 마약류 일부를 자신의 백팩에 옮겨 담아 국내로 운반함

- '24. 5. 17. 구속영장 청구 / 발부(5. 18.)
- '24. 5. 30. 구속 기소

※ 수사결과, 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이전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소분하여 은닉하는 드러퍼*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1,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하고, 여행용 캐리어를 이용해 마약을 운반한 사실 확인

* 드러퍼 :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마약류 구매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소분하여 재차 분산 은닉하는 역할

▣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 대량 밀수 적발

- 『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』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총 5가지 종류의 마약류 대량을 국내로 들여온 밀수 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, 밀수입 마약류를 전량 압수하여 마약류의 대량 유통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음
-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,035.32g, 케타민 1,079.46g, 엑스터시 1,000정, LSD 800장, 대마오일 1,124.84g 등 약 7만명 동시 투약분이고, 소매가 합계 약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양으로, 세라믹 용기, 플라스틱 영양제통·삼푸통 등에 담아 위장한 후 여행용 캐리어 및 백팩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함

▣ 증가하는 국제적·조직적 마약 밀수·유통사범 엄정 대처

- 최근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, 일본, 미국 등 국가에서 소위 '지계꾼'을 고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이용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마약류 밀수 범행은 갈수록 전문화·조직화되어, 국제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음
-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「인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」 등을 통해 세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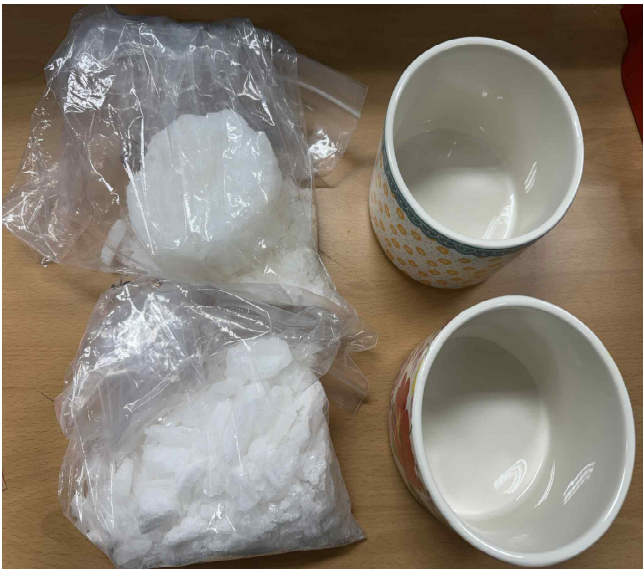
압수물 사진



[압수물 전체 사진]



[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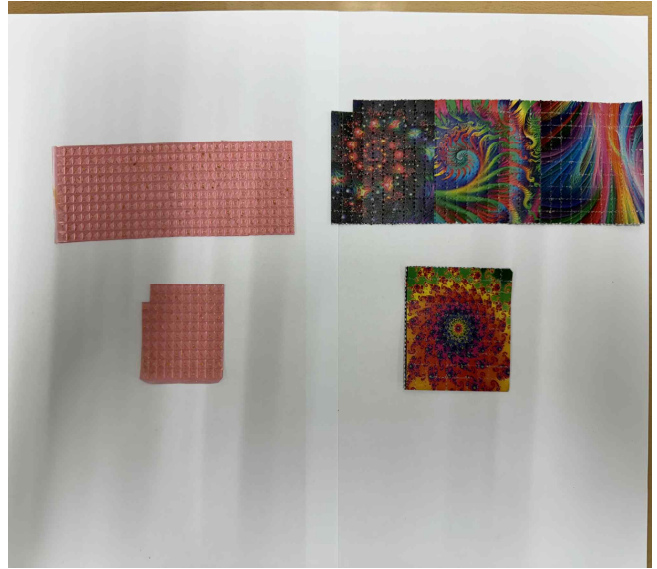
[필로폰 약 1,035.32g 및 은닉 용기]



[케타민 약 1,079.46g 및 은닉 용기]



[엑스터시 1,000정 및 은닉 용기]



[LSD 800점]



[대마오일 약 1,124.84g 및 은닉 용기]



[액상대마 흡연용 카트리지 499개]



[액상대마 흡연용 카트리지 498개]



[현금 422달러]